

面的 下臺甲石上에 長矩形의 一石이 配置되고 있어 塔에 結構된 奉爐臺로 생각되는 바 그 東西側面에는 各各 座佛 一軀가 陽刻되어 있다. 塔身과 屋蓋는 各一石으로 構成되었는데 塔身에는 隅柱가 模刻되었고 第一塔身에는 各面 一軀의 座像이 陽刻되어 있어 四方佛의 方案으로 推定되었다. (南面座像만이 他像에 比하여 작은 것은 前述한 奉爐臺石의 附加로 因함) 屋蓋는 檐裏가 水平短促되었고 層級形 받침은 一層이 四段, 그 以上은 三段으로서 蓋頂의 塔身받침은 모두 一段이다. 相輪으로서는 覆鉢과 仰花만이 남았는데 前者에는 花紋結紐가 둘러새겨졌으며 後者 또한 花文이 彫飾되어 있고 그들 中央을 貫通하여 檠柱孔(直徑十五cm)이 있다. 基壇 一部가 破損된 以外는 保存이 良好한데 基壇部의 特異點과 塔身彫像의 配置等은 注目할만하다. (下基幅一三五cm 上基幅一七五cm 第一塔身 高六九cm 幅七三cm 一九六〇年 調査)

獸面磚

孟 仁 在

近日 蕉雨莊에서 過眼한 新出來의 浮彫로서 發見地는 慶州 興輪寺址라 傳한다. 이미 많이 發見된 瓦磚의 鬼面을 닮았기 때문에 獅子라고 꼭 斷定할 수는 없겠으나 形狀에 의하여 想像되는 用途와 表現形式이 常規에 들지 않으리라는 점으로 必竟은 獅子가 아닌가 생각되며 몇 분의 意見도 여기에 맞고 있는 것 같다. 이 異形磚을 처음 보았을 때 筆者는 그 生新함에 雀躍할 뻔 하였다.

一

形狀은 若干 下寬上促한 橫長形이며 底邊에 넓이 二·五cm의 緣部가 있고 上邊兩端에는 얇은 立方體 突起가 있다. 浮彫는 獅子(?)의 面部로 끝났으며 中央鼻梁은 大破、兩端의 突起에도 若干의 破損이 있다.

第三卷 第四號 通卷二十一號



流暢한 渦狀말기가 끝나는 上部兩端에는 두툼한 橢圓形귀가 있고 眼部를 中心으로 한 小部分의 表現은 鬼面과 비슷하나 아가리의 變形과 橫長의 磚面을 가득 메운 渦狀으로 말린 平行曲線의 自由스러운 鬼面一般의 約束을 많이 벗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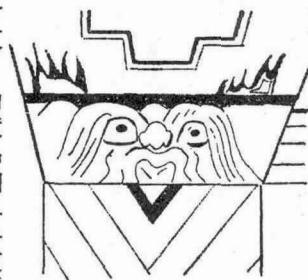
三

鬼面の 約束을 벗어 버린 理由가 定해진 外形에 의한 制

約이라는 他律이 아니라 스스로 처음부터 거기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따른 特殊한 用途도 자연 想像되지 않을 수 없다. 彫刻의 優秀性和 함께 注目되는 것은 아직 全面에 뚜렷이 남아 있는 刀痕이며 따라서 製作도 틀에 박아낸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押型彫出한 鬼面이 갖는 類型化된 모델링에의 努力도 볼 수 없으며 各部分의 屬性은 作者의 마음껏 伸長되고 있다.

四

이 磚의 用途는 앞에 말한 바 底緣의 構造와 上部兩端의 突起가 다른 物體에 嵌入할 때에 必要했으리라는 점으로 대강 짐작이 되는데 昨年蔚山에서 發見된 北朝風如來座像의 獅子座도 適當한 傍證資料일 것 같다. 또 雙楹塚後北壁 夫婦圖의 向左柱頭에도 長方形의 裝飾獸面이 明確히 그려져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獅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가지 實際使用方



法을具體的으로 나타내고 있어 역시 이 博의用途를暗示하는資料가 될 것이 다。

廖 獅子는 古代西亞地方에 많이棲息하
였고 우리 나라에는實在하지 않았으나
又 이미 三國時代에 中國을通해서 彫刻藝
術로輸入된 것은 芬皇寺에서도 보는 바
와 같다. 古代 메소포타미아, 小亞地方

으로부터 印度 中國으로 東流한 것은 現存하는 遺品으로 알 수가 있으며 그것을 王宮門前의 守護神 또는 神의 屬性, 聖獸로서 邪惡에 對決시킨 用途는 서로 共通되고 있다. 中國에서도 六朝時代에는 佛臺座에 많이使 用되었으며 特히 咆哮하는 單獨像으로 수염과 갈기의 表現이 이 浮彫와 近似한 것은 龍門萬佛洞左石獅(六八〇)일 것이다. 齊明帝與安陵의 石獅 (四九八)에도 길고 流麗한 갈기가 있고 慶州發見, 若干의 막새기와에 도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같은 獅子들은 丸彫, 浮彫가 모두 類型化되었다. 獅子에 가까우면서도 多樣한 이 浮彫는 아마 佛臺座에 使 用되었으리라 하고 짐작 되지만 斷言은 할 수가 없다. 더具體的인 用途와 眷屬이 밝혀지지 바란다. (높이 六·八cm 厚九cm 上邊三一·七cm 下邊 三四·三cm)

慶州出土의 石製寺印

洪 思 俊

昨年 十二月二十日에 徐壽龍의 好意로 入手된 滑石製「普光寺藏」銘이 있는 寺印은 同月中旬에 慶州의 小金剛山으로 이름있는 栢栗寺入口附近이며 現陸軍病院앞을 通過하는 水路工事에서 出土된 것이라 傳한다. 普光寺院이었던지 或은 高麗時代 寺刹이었던지 未詳하며 또는 慶州以外

地域에 있던 寺院인 지 文獻이나 또는 口傳에도 全然 찾아볼 수 없는 寺名이다.

그러나 이 遺品이 慶州市內 龍江里에서 出土된 것만은 事實이라고 한다.

遺物은 形態가 印面이 平面으로 짜였으나 多少縱으로 內曲하여졌고 印背에

는 五指가 自由롭게 들어가게 縱으로 손잡이가 달린 橢圓에 가까운 外形이고 손잡이 中間에는 끈을 쥘 수 있게 小孔이 뚫려 있음을 보아서 絶어 두고 常時 使用하였던 것을 짐작하게 된다. 印面에는 兩行으로 字大縱이 一寸九分——二寸一分 橫 一寸六分——二寸의 篆字體의 比較的 勻은 劃으로 陽刻되었으며 글씨도 불만하다. 印面 刻字를 右書하였음에서 적어 보면 左書로 나타난다. 이 寺印에서 注目되는 것은 寺印이 普通例이나 藏字를 字末에 부친이 特色이라 하겠다.

- 印面長 四寸六分 印面幅 三寸六分
- 印緣上下 四分——八分 印緣左右 二分——五分
- 印高(손잡이까지) 二寸三分



加里浦 在銘 雙穴銃筒과 靑銅製容器

金 尙 翊

昨年七月 全南 莞島 長佐里에서 出土되어 國博에 收藏된 雙穴銃筒과 用